

메르스 사태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

## A Lesson Learned from the MERS Epidemic in Korea: An Essay on MERS

메르스 유행이 절정에 이르던 6월 어느 날, 문득 40년 전 일 한 가지가 머리에 떠올랐다. 1970년대 중반 서울에서 발간되던 한 문예지에서 당시 여러 언론매체에 종종 생활과학 관련 글을 쓰던 자연과학 분야 몇 사람에게 100년 뒤 한국사회 모습에 관한 짧은 공상과학소설을 쓰게 했던 일이 있다. 그 때 나도 의학 분야에 관한 원고를 하나 청탁 받았는데, 당시 내가 쓴 글의 제목이 <괴질怪疾, 제주도에 상륙하다> 이었다. 그 때로부터 100년쯤 지난 2070년대 중반이면 지구상에서 모든 감염병이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물론 의사들도 바이러스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제주도에 갑자기 전염성이 강한 괴질이 발생해 나라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다는, 말 그대로 '공상' 과학소설이다. 그 글에서, 나는 그 때까지 국내 유일의 바이러스 전문가로 남아 있던 남궁(南宮) 교수라는 노老 학자를 주인공으로 내 세운다. 대학 재직 시에도 그는 젊은 교수들로부터 '아무 쓸 곳도 없는', 그래서 대학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곤 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바이러스에 의한 무서운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게 될 거라고 주장하면서 퇴직 후 이미 9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외롭게 연구를 계속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제자이기도 한, 보건부장관 K박사로부터 이상한 질병이 제주도에 발생해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도움을 청하는 급한 전화를 받는다. 병의 증상과 전파양상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던 남궁 교수는 온 몸에 전율이 이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는, "아, K장관! 그건 아마도 이미 100여 년에 지구상에서 없어졌던 천연두일 것이 분명하오. 그것이 어떤 경로로 제주도에 다시 발생을 하게 되었는지는 내가 내일 현지로 가서 알아보긴 하겠소만 어쨌거나 그것이 제주도에 발생했다는 건 불행 중 다행이오. 만일 내륙에서 발생했다면 정말 큰일이시요. 우선 제주도로부터 육지로 오는 모든 항만을 봉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곧 전국 방송망을 통해서 지난 삼사일 사이 제주도를 여행했거나 그곳에서 내륙에 건너온 사람은 현 위치의 보건소에 자진 신고해서 격리 감시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아시겠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오."라고 말한 뒤 남궁교수는 악을 쓰듯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 백신을!" 하며 자신의 연구실을 향해 달려간다는 줄거리다.

이번 5월 중순 이후, 두 달 남짓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말 할 것도 없고 그동안 온 국민이 겪어야 했던 불편과 불안감, 그리고 무엇보다 서른여섯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잃었다. 일반 현미경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21세기 첨단과학 시대에 이렇듯 큰 공포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미처 생각 못했던 일이다. 가히 바이러스의 반란이라고 할 만하다. 물론 그동안에도 사스나 신종플루, 그리고 에볼라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병 유행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발생해 왔고 그 때마나 우리나라

정부가 나름대로 대비를 해 왔지만 일반 국민은 물론 의료계에서조차도 솔직히 이런 감염병의 유행을 강 건너 등불 보듯 한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이일을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공중보건 활동을 좀 더 강화할 것이고 병원들도 감염자 격리치료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작은 미물(微物)이라고 해도 바이러스 또한 '생명체'이고 모든 생명체에게는 스스로 성장과 발육을 해가려는 본성이 있어서, 과학이 서둘러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개발하면 바이러스는 변종을 일으켜 언제고 무서운 병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질병역학 적으로 볼 때, 감염병은 미리 그 발생을 막고 그래도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서 추가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역활동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효과가 높은 백신이 개발되어야하고 체계적인 보건당국의 방역체계가 상시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해외여행자가 많고, 더구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감염 자체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나 의료기관이 평소에 많은 인력과 경비를 드려 감염병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감염병의 유행방지는 무엇보다 환자로 확진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사람들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나 감염의심자 자신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남을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지 않는다면 감염병 유행을 완벽하게 막을 길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감염병 유행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하는 사람들의 자진 신고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이들을 보호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은 그것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인간 사이의 균형 있는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이기심을 버리고 좀 더 '사람답게' 살도록 해 주는 하나의 장치가 되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한 어느 인문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남을 배려하는 '인문학적 성찰'이야말로 메르스와 같은 무서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말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롭게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한다.